

2004-1-518

# 2004년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일 시 : 2004년 9월 9일(목) 13:30~10일(금)
- 장 소 :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 주 죄 :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후 원 : 환경부, 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우Eng., 대한토양환경연구소, 동명엔터프라이즈,  
아름다운환경건설, ENVAC 센트럴석, 자연환경연구소,  
환경관리공단

## 9/10(금요일)

시간	A 발표장	B 발표장	C 발표장
좌장	이평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윤성백(고려대학교)
09:00~09:20	Reclamation of the Closed/Abandoned Coal Mine Overburden Using Lime wastes from Soda Ash Production  김휘중, 양재희, 육용식, 유경열, 박병길, 이재영, 전상호 (강원대학교, 용진, 서울시립대학교)	유전출을 이용한 토양오염 모니터링 기법 의 제안  김만일, 김형수, 정교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안동대학교)	염/담수 분포특성을 이용한 해수침투보호 구역설정  황세호, 신제현, 박권규, 박윤성, 이상규 (한국시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09:20~09:40	부산석회를 활용한 휴·폐석탄광산 폐기물에서 유출된 침출수의 안정화  김휘중, 양재희, 육용식, 유경열, 박병길, 이재영, 전상호 (강원대학교, 용진, 서울시립대학교)	균열 암반 대수층 활용 지하수 인공 함양 주입 예비 평가  김형수, 백건하, 윤윤영, 한정상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한국수자 원공사, (주)한서엔지ニア링)	지하수 유향·유속 자료 및 균열 분포를 이 용한 균형암반 C성화 기법  김태희, 신제현, 황세호, 김구영, 조병숙, 채병곤,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9:40~10:00	Long-term hydraulic conductivity and cation exchange of a geosynthetic clay liner(GCL) permeated with inorganic salt solutions  Hoyoung Jo, Craig H. Benson, Tuner B. Edil (고려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Effect of land use and urbanization on groundwater recharge in metropolitan area: time series analysis of groundwater level data  Gi-Tak Chae, Seong-Taek Yun, Danyi Seung Kim, Hyeon-Su Choi (고려대학교)	기하양상을 고려한 균열 내 투수계수 산정 체생곤, Ichikawa Y.,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나고야대학)
10:00~10:10	Coffee Break		
좌장	활인성(부산대학교)	신원식(경북대학교)	김경웅(KJIST)
10:10~10:30	디젤오염토양복원을 위한 고온공기 주입/ 추출 공정의 토양 파입·공법에의 적용 연 구  박기호, 박민호, 홍승모, 고식오 ((주)내우건설, 경희대학교)	한반도 온천수의 수리화학 및 영족기체 기 원: 대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정찬호, 박지선, K.Nagan, H.Sunmoo, 김규 한, 허준도, 이종익, 고왕권, 박충화(대전 대학교, 동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 국해양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적 4개 오염지역의 수리지침 특성과 미생물학 연구  연명우, 고성석, 김재관, 조경숙, 이상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10:30~10:50	철과 양수성 물질을 이용한 PCE와 크롬 제 거에 관한 연구  조현희, 천병식, 박재우 (한양대학교)	A study on groundwater and pollutant recharge in urban area: use of hydrochemical data  Jang-Sook Kwon, Juhee Lee, Seong-Taek Yun, Gi-Tak Chae, Seong-Sook Park (고려대학교)	연·아연광산 지역 내 복토된 광미장 부지 농작물(비)의 채내 중금속 오염도  이평구, 신영식, 최상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10:50~11:10	Evaluation of electrokinetic remediation of arsenic contaminated soils  Soon-Oh Kim, Won-Seok Kim, Kyoung-Woong Kim (경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Hydrogeochemical study of a watershed in Pocheon area: controls of water chemistry  Kyoung-Ho Kim, Seong-Taek Yun, Soo-Ho Chae, Jong-wook Jeon, Jeong-Ho Lee, Hae-woo Kweon (고려대학교, 광업진흥공사)	인회석을 이용한 도금폐수 내 중금속 제거 효율 실내실험  최정완, 과위진, 강두현 (부경대학교, (주)바투환경기술)
11:10~11:30	Electrokinetic-fenton 공정에 의한 phenanthrene으로 오염된 노양의 정화시 에 보조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영향  김성환, 양지원, 김수삼 (KAIST, 한양대학교)	피트휴민(Peathumin)을 이용한 연속흐름 에서의 중금속 제거 연구  이창훈, 신현상, 권순용, 강기훈 (서울산업대학교, 대림산업(주))	Analysis of a microbial community denitrifying nitrate to nitrogen gas in a nitrate- contaminated aquifer  김영, 어성육, 권수열, 김진환, 손봉호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이수토양환경학회 추계학술 발표회  
2004년 9월 9~10일 전주 대학교

518

## 한반도 온천수의 수리화학 및 영족기체 기운 :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정찬호, 박지선\*, K.Nagao\*, H.Sumino\*, 김규한\*\*

허준도\*\*\*, 이종익\*\*\*, 고용권\*\*\*\*, 박충희

대전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동경대학교 지진화학연구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chjeong@dju.ac.kr)

### <요약문>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noble gas isotope and the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ot springs in the Chungcheong area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the financial support of Korea-Japan joint research program of KOSEF. Noble gases are very useful tracers to investigate volatile elements circulation, because of their unique isotopic compositions in various reservoirs of the Earth. Isotopic ratios of noble gases has been carried out for 16 hot-spring samples from Daejon and its near areas in Korea last January 2004. Helium isotope ratio gave the evidence that helium gas of different origins(air-crust mixing origin, crust-origin and mantle-origin) is supplied into hot-spring waters in Korea. We found the distinct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of hot springs and helium gas origin.

**key word :** hot-spring, noble gas, mantle, crust

### 1. 서 론

해양판의 심입 깊이가 매우 깊은 동해와 내륙지역에 속하는 한반도에서는 온천수에 대한 노블가스 동위원소 연구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블가스 동위원소 조성을 측정하고, 한반도에서 벤튼 유원-신부지자이로부터 유래된 휘발성원소의 존재도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온천유형별 생성 원성의 특성과 원원의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부로부터 윤만된 휘발성원소의 비율과 유출정도를 구하고, 심입내로부터 비교적 밀리 떨어진 경마장에서의 휘발성원소의 물질 순환 기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 심입내와 가까운 일본열도, 자오와 비교해 심입대 주변(또는 대륙연변부)에서의 광역적인 휘발성원소 순환기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블가스의 같은 영족기체(noble gas) 동위원소 분석은 국내 온천연구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국내 학교의 연구이다.

그럼 1은 대평양 및 필리핀 해 지각판이 일본열도 아래로 침강하는 것으로, 이 침강 깊이가 100km를 넘는 화산 일선(volcanic front)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 열도의 화산온천 활동은 이 화산열선보다 깊은

곳에 화산연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맨틀로부터 용출되어 나오는 일주기체는 화산가스와 더불어 온천 가스 속에서 검출되고 있다. 지구 표층과 내부에 걸친 휘발성 원소의 물질 순환 과정 연구에 있어서, 영족기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실제로서 각기 다른 세 구조(대기, 지각, 상부 맨틀)의 헬륨 원소가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동위원소의 변화를 그림 2에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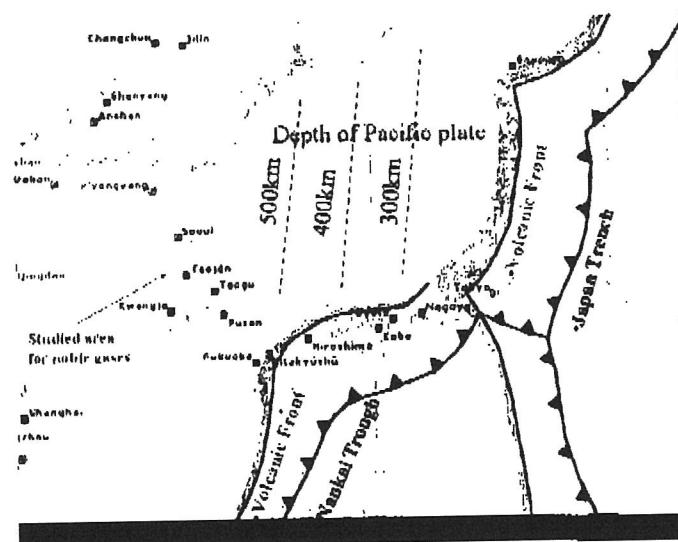


그림 1. 태평양 판과 필리핀해 판의 접임지역과 volcanic front(화산선)과 신반도의 연구지역(온천지역) : 온천수의 수리화학적 및 영족기체 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설정한 수采지역.

## 2. 연구방법

충청지역의 9개 온천지구에서 16개 온천수와 가스시료를 채취하였다. 온천수에 대한 현장수질(pH, E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옥도)을 측정하였다. 양이온성분과 비양이온 성분은 유도결합쌍 플라즈마 원자밀출분광분석기(Shimadzu 모델 ICPS-1000 III, ICP-AES)와 유도결합쌍 고라즈마 질량분석기(Fison model PQ III, ICP-mass)로 분석하였다. 음이온 성분인  $\text{SO}_4^{2-}$ ,  $\text{Cl}^-$ ,  $\text{NO}_3^-$ ,  $\text{F}^-$ 들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Dionex 120i)로 분석하였다. 노플가스 분석용 시료는 특수 제작된 신공용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기- $\text{N}_2$ - $\text{He}$ 의 적절 가스시료를 채취하였다.  $\text{He}$ ,  $\text{Ne}$ ,  $\text{Ar}$ 의 동위원소비와 모든 노플가스( $\text{He}$ ,  $\text{Ne}$ ,  $\text{Ar}$ ,  $\text{Kr}$ ,  $\text{Xe}$ )의 원소적 함량은 동경대학교 시설화학 연구실의 질량분석기(MS-III)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동위원소 질량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치는 Aka et al. (2001)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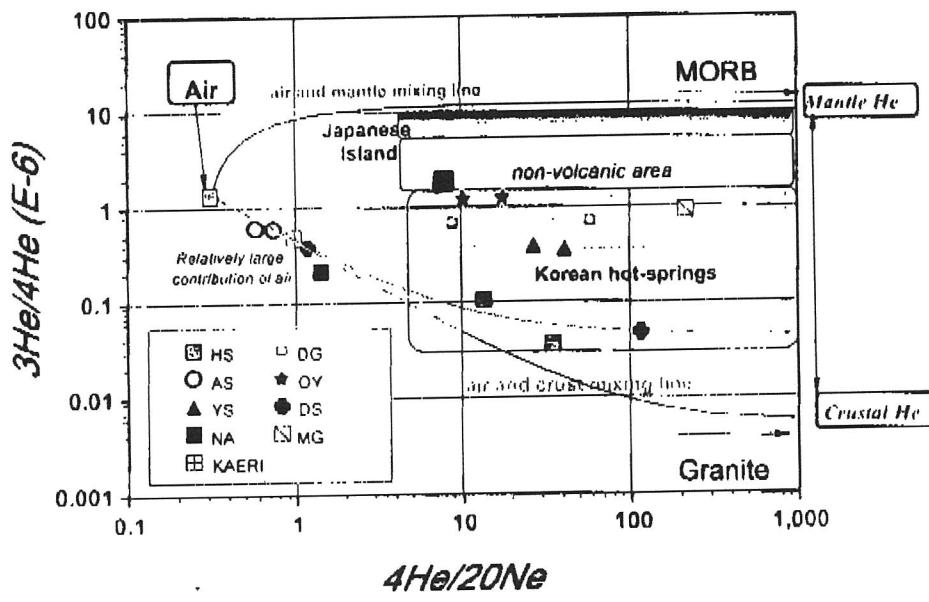
## 3. 연구결과 및 토의

충청지역 연구대상 온천수의 성분상 특성별로 구분하면 알카리성 탄산온천(유성온천, KAERI온천, 운암온천, 아신온천), 유황온천(분상온천, 도고온천, 운암온천), 탄산-유황온천(운암온천) 등으로 구분된다. 수리화학적 특성은 보면 운암나신온천을 제외한 온천은 pH 7.6-9.8 범위의 악알카리성에서 악기리성의 특성을 보이며, 운암온천은 pH 6.7의 약산성을 보인다. 온천수의 전기전도도를 보면 운암온천의 경우 2780  $\mu\text{S}/\text{cm}$ 으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는데 다른 온천수는 224-495  $\mu\text{S}/\text{cm}$  범위를 보인다. 바이어트성에 도입한 온천수의 화학적 유형을 보면 Ca-HCO<sub>3</sub>형에서 Na-HCO<sub>3</sub>형의 영역에 분포한다. 같은 온천지역에서 채취한 온천수의 경우에도 나쁜 수리화학적 영역에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14) 21: 상세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헬륨 동위원소비율과 지각판의 깊이 및 화산활동 지  
역의 이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맨틀 기원 헬륨과 MORB형은 화산 열선으로부터 호상일도에 걸  
리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현저히 나타난다. 이에 반해, 화산역선에서 지각판  
이 침상해 들어가는 해구쪽의 비화산 지역에서는 맨틀 기원의 영광기체의 용출은 잘 나타나지 않고 헬  
륨 동위원소비율 ( $^{36}\text{He}/^{40}\text{He}$ )는 맨틀 헬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를 지각속에 축적되어 있는 우  
리나, 도금의 불씨에 의한  $^{36}\text{He}$ 의 함량이 심부 맨틀로부터 기원하는 헬륨비에 비하여 많이 생출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헬륨 동위원소비는 판의 섭입 깊이, 화산 활동과 맹렬한 관리이 있으며  
맨틀과 지각으로부터 지표에 방출되는 화발성 원소의 경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시표로 이용된다(Ikeda,  
et al., 2001; Kusakabe et al., 2003).

시급까지의 일관 열도에 걸친 영족기체 연구자료는 호상열도에 따라 한정되어 있고, 지사판의 짚이가 시의 같은 뜻으로, 지사판의 짚이가 크게 다른 동해와 한반도에 걸친 영족기체 동위원소 사료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세주도의 화산암의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럼 고온 헬륨가스의 기원으로 대기, 지각, 앤틀 3곳의 단성분의 동위원소 조성을 가정한 모델계산을 하였고, 이번 연구에서 채취된 온천수내 영족기체의 동위원소 값을 도시한 것이다. 헬륨 동위원소 중  $^{3}\text{He}$  대기기원  $\text{He}$ 의 기여가 비교적 큰 5개 온천시료(아산온천, 덕산온천, 능암단산온천, KAERI온천)는 대기하고는 80% 이상이 지각입석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각 물질 중의 존재도가 높아 서운  $^{3}\text{He}$  경우에는 8개 시료가  $^{3}\text{He}$ 의 90% 이상이 상부맨틀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일본일도와 비교하면 헬륨 동위원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앤틀기원의 헬륨이 온천수에 공급되어서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네온, 아르곤 등의 동위원소 조성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온천수의 대부분이 대기와 차닌된 상대에서 서하 같은 곳에서 저류층의 암석으로부터 나온 영족기체를 함유하고 있다. 이의 진이 온천수내 영족기체의 분식을 통하여 앤틀기원의 헬륨가스가 온천수에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되는 것이다. 이 사료는 국내 온천수의 열원의 해석, 온천수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4부 2. 대전·충진지역에서 채취된 은진수의 헬륨 동위원소비와 일본은천의 헬륨 동위원소비. (HS·충성은천, DG·도교은천, AS·아산은천, OY·온양은천, YS·유성은천, DS·덕산은천, NA·농암은천, MG·묘강은천, KAEKI·대전은천)

## 4. 결론

향후 한반도 전역에 걸친 온천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휘발성원소의 비율과 양을 측정하며, 맨틀로부터의 휘발성 원소 유출을 유발하는 화성활동의 정도와 지역적 관련성을 명히 학파·동시에, 시각과 섭입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한국지역의 지하 수문에서의 휘발성 원소의 경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얻어진 영족기체 자료는 일본의 온천 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국내 온천의 성인 및 지열시스템에 대한 명료화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사

이 연구는 과학재단의 한일공동연구(과제번호 F01-2004-000-10189-0)의 연구비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 참고문헌

- Aka, F.T., Kusakabe, M., Nagao, K. and Tanyileke, G., (2001) Noble gas isotopic compositions and water/gas chemistry of soda springs from the islands of Bioko, So Tom and Annobon, along with Cameroon Volcanic Line, West Africa. *App. Geochem.*, 16, 323-338.
- Ikeda, Y., Nagao, K. and Kagami, H., (2001) Effects of recycled materials involved in a mantle source beneath the southwest Japan arc region: evidence from noble gas, Sr, and Nd isotopic systematics. *Chem. Geol. (Isotope Geosci.)*, 175, 509-522.
- Kusakabe M., Ohwada M., Satake H., Nagao K. and Kawasaki I., (2003) Helium isotope ratios and geochemistry of volcanic fluids from the Norikura Volcanic Chain, central Japan: Implications for crustal structures and seismicity.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10, 75-89.